

#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377호 (2013년 10월 첫째 주)

정책정보통계센터·Tour.go.kr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6일 기공식 가져.....	3
[국토교통부] 8월 항공여객·화물 운송량 증가 ... 국제여객 역대 최고 .....	5
[문화체육관광부] ‘제40회 관광의 날’ 관광진흥유공자 정부 포상.....	7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국경절(10.1.~10.7.) 맞아 관광 점점 지역별 관광수용태세 점검.....	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11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 변경.....	12
[외교부] 한-우크라이나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 개최.....	13
[해양수산부] 정부,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21개 주민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확정...	14
[해양수산부]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대비 30% 증가 .....	16
[해양수산부]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7
[해양수산부] 올해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은?.....	18
[서울특별시]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에 참여하세요.....	19
[부산광역시] 부산시, 국경절 맞아 중국 관광객 맞이 준비 완료!.....	21
[부산광역시] 부산시, 일본 의료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23
[부산광역시] 부산과 경남을 잇는 뱃길복원을 위하여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24
[대구광역시] 편리해진 시티투어 대구 관광이 즐겁다.....	25
[인천광역시] 재미와 환상이 가득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착공.....	27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관광 활성화 손잡아.....	28
[대전광역시] 아시아 와인허브도시 대전-명실공히 국제행사 면모.....	30
[대전광역시] 대전시, 오감만족 ... 다양한 국제행사 다음주까지 쭉~.....	32
[울산광역시] 울산시, 주한외교사절 초청 ‘울산 팸투어’ 개최.....	34

[울산광역시] 울산서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공동전략 논의.....	35
[울산광역시] 울산시,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서.....	37
[울산광역시] 울산시, 제5차 울산권 관공개발계획 수립.....	38
[세종특별자치시] 놀고먹는 캠핑은 가라...문화가 있는 즐거운 체험.....	40
[경기도] 경기도, LA 한인교포 마음 사로잡았다.....	41
[경기도] 경기도, 민통선 안보체험시설 명품 프로그램 개발 총력.....	42
[강원도]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정부 지원방침 확인! .....	44
[강원도] 국내외 한류 관광객 2만여명 원주로 몰려온다! .....	45
[충청북도]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도내 관광 홍보효과 톡톡 .....	47
[충청북도] '웰빙관광의 최적지, 충북으로 놀러오세요' .....	48
[전라북도] 전북도,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박차.....	49
[전라북도] 전북의 매력에 푹 빠진 일본 관광단 러시 !.....	50
[전라남도] F1 자동차경주대회, 지역경제 효과 톡톡.....	51
[경상북도] 이스탄불-경주엑스포, 23일간 문화대장정 피날레.....	53
[경상남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45일간 대장정의 막 올라.....	56

##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6일 기공식 가져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신축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 기공식을 9월 26일 오후 3시 제2여객터미널 건설부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기공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속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며, 이 중 3단계 사업은 “9만 3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17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창조경제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 또한,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구촌의 축제로 치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최고의 품질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인 개항 이후 여객 수요가 매년 6%가 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 지속적인 여객수요 증가로 2017년경에는 여객터미널과 항공기 계류장 등 핵심 시설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을 핵심으로 하는 3단계 건설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 현재 아시아 각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심 축(허브)공항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전략을 모색 중이며, 아시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변공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이러한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 3단계 건설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건설에 2조 2,000억, 연결교통망(철도, 도로)에 9,200억, 제2교통센터에 2,300억 등 총 4조9,3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3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여객처리능력은 현재 4천4백만명에서 6천2백만 명으로, 화물처리능력은 450만 톤에서 580만 톤으로 증가된다.

- 3단계 사업의 건설기간 중에는 약 93,000개의 일자리와 약 1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4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 등록일 : 2013.09.27)

## [국토교통부] 8월 항공여객·화물 운송량 증가 ... 국제여객 역대 최고

- 지난해 동기대비 여객 9.6%, 화물 1.3% 각각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8월 항공여객이 지난해 동기대비 9.6% 증가한 727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항공화물 역시 1.3% 증가한 29.6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연도별 8월 항공여객(단위: 만 명) : 581('10.) → 625('11.) → 663('12.) → 727('13.)

\* 연도별 8월 항공화물(단위: 만 톤) : 29.6('10.) → 29.6('11.) → 29.3('12.) → 29.6('13.)

○ 특히,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동기(472만 명: 역대 최고) 대비 8.5% 증가한 513만 명을 기록하여 역대 8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국내선 여객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191만 명)보다 12.3% 증가한 214만 명을 운송하였다.

\* 연도별 8월 국제여객(단위: 만 명): 389('10) → 423('11) → 472('12) → 513('13)

\* 연도별 8월 국내여객(단위: 만 명): 191('10) → 201('11) → 191('12) → 214('13)

□ 지난해 동기대비 '13년 8월 상세 항공운송실적은 다음과 같다.

○ 국제선 여객은 여름 휴가 시즌 및 광복절(8.15) 징검다리 연휴와 원화 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 한류열풍으로 인한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의 지속적인 성장 등에 힘입어 일본(△7.3%)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 주요 노선별 증가율: (중국) 25.1%, (동남아) 8.5%, (미주) 9.3%, (유럽) 5.4%

- 국적사의 국제선 여객 분담률은 329만 명을 운송하여 64.2%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저비용항공사(LCC)의 여객 분담률은 지난해 대비 1.9%p 증가한 10.1%를 기록했다.

\* 연도별 8월 LCC 분담률: 2.8%('10) → 4.8%('11) → 8.2%('12) → 10.1%('13)

○ 국내선 여객은 KTX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내륙노선 감소(지난해 대비 △1.9%)에도 불구하고 전체노선에서 84.7%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노선의 증가(지난해 대비 15.3%)로 지난해 대비 12.3% 증가했다.

- 저비용항공사(LCC)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여객 분담률은 3.6%p 상승한 47.4%를 기록했다.

\* 연도별 8월 LCC 분담률: 33.9%('10) → 42.7%('11) → 43.8%('12) → 47.4%('13)

○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27.5만 톤을 수송하여 8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인천공항 환적화물도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0.04%)한 9.1만 톤을 기록하였다.

\* 국제화물 역대 8월 최고실적: 27.3만 톤('10.8)

- 8월 항공교통량은 하계휴가 등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로 지난해 대비 10.2% 크게 상승하여 총 52,313대, 일평균 1,688대를 기록하였으며 국제선은 일평균 31,119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8.9%, 국내선은 17,953대로 16.6%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항공교통량: 항공교통센터에서 항공로를 운항한 항공기 대수

- 국토교통부는 9월 항공여객은 긴 추석 연휴(9.18~22)로 장거리 노선 수요 증대, 중국 중추절 연휴(9.19~21)에 의한 중국관광객 증가,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항공화물의 경우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QE·Quantitative Easing) 축소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신기종 스마트폰 출시 등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의 운송 수요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1) | 등록일 : 2013.09.27)

## [문화체육관광부] ‘제40회 관광의 날’ 관광진흥유공자 정부 포상

- ㈜하나투어 박상환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수상 등
  -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를 맞아 산업훈장 1개 늘어나
- 서울시내 호텔에서 근무하는 김송기(53세) 서울식음팀장은 1982년부터 약 31년간 호텔 조리업에 종사하며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G20 정상회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해외 외빈을 맞아 오찬과 만찬을 성공적으로 총괄, 감독해왔다.
  - 한편,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관광통역안내사 김미숙(50세) 씨는 각계에 관광통역안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써 지난 2009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의무고용제 도입에 기여하였고 ‘경주현장안내매뉴얼’의 제작에 참여하는 등 관광통역안내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노력해 온 업계 대표와 현장 종사자 등 104명에 대하여 ‘제40회 관광의 날’을 맞이해 산업훈장 등, 포상이 실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제40회 ‘세계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9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산업훈장과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갖는다.
    - 기념식에는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주한 외교 사절 및 수상자를 비롯한 관광업계 대표와 종사자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한다.
  - 금탑산업훈장에 ㈜하나투어 박상환 대표 등 총 104명, 15개 업체 포상
    - 이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여행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하나투어 박상환 대표이사가 수훈한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업계의 원로로서 한국유원시설협회를 설립하는 등 업계 발전에 기여한 (주)동마기업의 이석명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총 24명이 관광진흥유공 산업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게 된다. 또한 숙박·여행·MICE·기념품판매업 등 다양한 관광산업 분야에서 선정된 80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외화 획득 10억 달러 달성 등 관광업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한 1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광진흥탑’이 주어진다
  - 관광 현장 종사자에 대한 포상 확대
    - 제40회이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열리는 이번 관광의 날의 정부포상 규모는 7년 만에 훈장 1개가 늘어난 것으로서, 업계에서는 이를 우리 관광이

2012년도 처음으로 외래관광객 1천1백만 명 시대를 연 이후, 지난 7월 17일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정부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에는 업체 대표급 인사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전문가, 고객 접점에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관광고등학교 교사, 판매원, 관광안내센터 직원 등 현장에서 노력해 온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였는데, 이는 관광산업의 현장을 중시하는 새 정부 관광정책의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관광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고객과 접하며 일하는 분들이야말로 우리 관광을 운택하게 하는 숨은 주역” 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이와 함께 창의적인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에 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관광산업계 인사들은 2017년까지 관광분야 100만 일자리 달성과 외국인관광객 1,600만명 유치, 관광수입 240억 달러 달성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세미나 함께 열려
- 한편, 기념식이 끝난 직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롯데호텔 가네트스위트에서 한국관광학회(회장 김경숙),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 국민이 행복한 여행, 지역이 행복한 관광’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산업계, 관련 협회,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국민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여행문화 확산과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 문체부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국내·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금년 중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2-3704-9716) | 등록일 : 2013.09.26)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국경절(10. 1. ~ 10. 7.) 맞아 관광 접점 지역별 관광 수용태세 점검

-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 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실시
- 방문 예상 외래관광객 28만 명 중, 중국인이 15만 명(전년 대비 64.5%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경절(10. 1. ~ 10. 7.)을 맞이하여, 서울 명동, 인사동, 동대문, 경복궁, 홍대 지역 일대에서 관광수용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하며 서울경찰청,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오는 10월 관광경찰 출범에 앞서 관광경찰이 시범운영 차원으로 동참하며,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음식점, 기념품 판매, 쇼핑, 가이드, 택시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
  - 관광업소 청결 및 정가제 표시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
- 점검 대상은 ▲ 관광식당(메뉴판, 친절도, 청결도), ▲ 숙박시설(요금표, 이용안내문), ▲ 안내판(관광 명칭 표시, 방향 표지판), ▲ 관광안내지도, 관광가이드, ▲ 상거래 질서(포장마차,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등), ▲ 콜밴·택시 불법 영업 ▲ 관광기념품 판매점, 면세점(쇼핑) 등이며, 이와 함께 관광 접점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 이번 국경절 기간 동안 방한 외래객은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중국 관광객이 15만 명(전체의 5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광취약 노출 부분을 보완하여, 품격 있고 성숙한 관광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체부는 지난해 여수엑스포 준비(2월), 노동절(5월), 국경절(10월), 올해 춘절(2월), 노동절(5월) 등, 계기별로 관광수용태세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명동, 인사동 등 지역 상권 관계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관광수용태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 지난 집중점검에서 특히 택시와 콜밴의 바가지요금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노력한 결과, 최근 국토부는 불법 콜밴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콜밴 불법영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관광법 시행(' 13. 10. 1.)으로 방한 단체관광 상품의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등 최근의 관광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관광업계에서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여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왜곡된 설명을 하는 등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과도한 쇼핑 유도 등과 같은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한 여행사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래 관광객들이 여행편의 제고 및 언어 불편 해소를 위해 ‘1330’ 전화와 ‘bbb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 ▶ 1330 전화 : 관광 안내, 관광불편 신고 및 통역과 관련하여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언어로 서비스
- ▶ bbb 통역 : 19개국 언어 통역을 위해 전국적으로 4,500여 명의 자원봉사자 활동
  - 국내에서 (국번 없이) 1588-5644 / 해외에서 현지국제전화코드-82-2-818-1500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bbb 통역’ 앱 다운로드 가능(무료)

- 문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수용태세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할 것이며 관광경찰 출범을 계기로 올바른 관광수용태세가 정립되어 세계인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2-3704-9798) | 등록일 : 2013.09.24)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 9월 24일 ~ 27일, 대한민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주관하는 ‘제16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9월 24일(화)부터 9월 27일(금)까지 4일간,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다.
-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998년 이래로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으로서, 올해는 전문가 심사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일반인 심사를 통해 관광객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우수 관광기념품 총 55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서울기프트쇼’와 함께 개최, 현대적 감각의 선물용품도 관람 가능
  - 이렇게 선정된 한국 대표 관광기념품 55점의 수상작은 코엑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수상작들은 지자체가 발굴한 우수 관광기념품과 함께 ‘우수 관광기념품 공동전시관’에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서울기프트쇼와 함께 개최되어 관람객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기념품은 물론 현대적 감각의 선물용품을 동시에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원활하게 상품화 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명품점(서울 인사동 소재)에의 입점 지원, 제품의 상품화 컨설팅 및 국내외 기념품박람회 참가 등의 판촉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2-3704-9739) | 등록일 : 2013.09.23)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 변경

### - 경쟁을 통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효과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9.26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자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음
  - 개정안은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
  - 경자법 시행령에 근거한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경자법에 명시
- 동 제도 변경은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7.17)의 후속조치임
  - 사전심사제도는 도입 당시 민원신청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변경
  - 한편, 경자법 개정예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절차에 의해서 심사 추진기로 결정
-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를 마련(문체부)하고 법 개정(산업부)을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정과제(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02-2110-5286) | 등록일 : 2013.09.27)

## [외교부] 한-우크라이나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 개최

- 「한-우크라이나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이 9.23(월) 제68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우크라이나측 레오니드 코자라(Leonid Kozhara) 외교장관간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양국은 2006.9월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이미 체결

- 동 협정은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상호 서면통보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예정

- 금번 협정의 체결은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인적교류의 활성화 및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02-2100-8167) | 등록일 : 2013.09.24)

## [해양수산부] 정부,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21개 주민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확정

- 정홍원 총리 주재, 제3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정부는 9.25(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열어,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확정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위원 14인(해양수산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등)

□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해양환경 복원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또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문제와 관련,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간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SOC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1, 2차 사업(53개사업, 1조1,073억원)에 이어 추가로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1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17,618백만원(국비 12,362백만원)을 심의·확정했다.

\* '어촌체험마을 조성', '고부가가치 수산자원(해삼전복 등) 조성', '수산물판매장 건립', '바지락양식장 모래 살포사업', '선박계류장 설치',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주민 체감형 사업(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보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충 남 (18개/8,762)						전 북 (1개/1,600)	전 남 (2개/2,000)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부안	무안	신안
사 업 수	21	2	4	2	2	4	4	1	1	1
총사업비	17,618	2,600	2,268	305	1,000	2,084	4,261	2,000	1,500	1,600
국비지원	12,362	1,940	1,659	184	800	1,250	2,929	1,600	1,200	800

○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장환경개선사업' 과 관련, 그 동안 투자계획에

비하여 부족하게 지원된 51억원을 2014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유류사고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하였다.
  - 첫째, 피해민 보상청구권을 보호하고 국제기금 보상분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 국제기금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 둘째, 소송지원을 위해 관할법원 인근(서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민 소 상담, 소송대리, 별도 손해보상청구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 아울러, 수산분야 피해 인정\*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수산과학원, 통계청 등)에 의뢰하여 사고 전·후의 어업생산 통계를 분석 후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 \* 국제기금 사정액 481억원, 사정재판 결정액 3,726억원(약 7.7배)
- 셋째,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보상금액이 유조선주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 넷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또는 법원 판결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지원총괄팀(044-200-6021) | 등록일 : 2013.09.25)

## [해양수산부]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대비 30% 증가

- 해상기상 전반적 양호, 연휴가 길어 귀성객 등 늘어

- 올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실적이 전년에 비해 11만 9천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실시한 특별수송 결과, 이용객이 총 51만8천명(일평균 86천명)으로 지난해(39만9천명)에 비해 30%나 증가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해상기상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 운항통제 횡수\*가 지난해 보다 현저히 줄었고, 특히 연휴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 운항통제 : 106회('12년) → 26회('13년)
    - \* 연휴기간 : 3일('12년) → 5일('13년), '12년 특별수송기간은 금년과 동일
  - 1일 최대 수송인원은 귀경객 등이 집중된 추석 다음날(9.20)로서, 12만 8천명으로 나타났다.
  - 주요 도서별 수송실적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매물도와 홍도 항로가 90%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데 이어 옥지도, 덕적도, 제주도 항로도 30%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귀성객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집중된 결과이다.
    - \* 매물도(5→15천명, 189% ↑), 홍도(11→21천명, 95% ↑), 옥지도(13→18천명, 39% ↑), 덕적도(15→21천명, 37% ↑), 제주도(55→72천명, 32% ↑), 서해5도(12→14천명, 16% ↑), 보길도(29→33천명, 13% ↑), 금오도(14→16천명, 12% ↑), 울릉도(30→32천명, 7% ↑)
  - 해양수산부는 금번 특별수송 기간 중 연안여객선의 증선(15척)과 증회(1,395회)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이용객의 안전한 수송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특히, 윤진숙 장관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9.17)하여 특별수송 준비상황 등을 직접 시찰하였고, 손재학 차관은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등의 방문(9.16~17)을 통해 연안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기울이도록 사전 독려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 등록일 : 2013.09.25)

## [해양수산부]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9월 25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사무소에서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과 설계방향 등에 대하여 먼저 설명한 다음, 충청남도 및 태안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 예전의 꽃지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이 고루 분포하고 배후에는 모래언덕인 사구가 발달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 인근 배후지에 해안도로 개설 및 파랑의 반복적인 내습 등으로 인하여 해안 사구가 파괴되고 백사장 일부가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꽃지해수욕장 침식방지사업을 반영하고, 2018년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여 사구복원(3,000m)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금년도 7월에 5억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으로서 명성을 회복하게 되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044-200-5263) | 등록일 : 2013.09.25)

## [해양수산부] 올해 가장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은?

- 올해 우수해수욕장으로 남해 상주은모래, 완도 명사십리, 서천 춘장대 선정
  
- 올해 가장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된 해수욕장은 어디였을까?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3년도 우수해수욕장으로 남해 상주 은모래, 완도 신지 명사십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13년도 우수해수욕장은 운영·환경·안전·경관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각 시·도 자체평가 및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전문평가단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상주 은모래해수욕장(경남 남해)은 현장평가 및 평가단 평가에서 이용객 안전을 위한 해파리 방지막, 위험경광등 설치 등 특히 안전관리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전남 완도)은 송림 등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자체 경관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등 경관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 춘장대해수욕장(충남 서천)은 사고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표지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조치로 안전관리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해양수산부는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9월말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4계절 국민 휴양지로서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해수욕장법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044-200-5251) | 등록일 : 2013.09.23)

## [서울특별시]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에 참여하세요

- 9.28부터 시민·관광객이 서울상징관광기념품 100선 선호도 조사
  - 9.28~10.10 기간 중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130점 전시
  - 100선에 선정되면 공공기관, 민간 기념품 샵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국내외 관광객에게 기념품 홍보 마케팅 및 소비촉진 지원
- 서울시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여행을 추억하거나 서울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100선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 특히, 수요자인 관광객·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매력이 높고 우수한 기념품을 뽑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그간 전통 공예품 위주로 개발된 기념품과 차별화하고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자, 제1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올해 6.10부터 9.6까지 진행한 바 있다.
    - 공모결과 180개 업체 266개의 우수한 상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9월 24일에 상품 기획·개발, 디자인, 공예 분야 전문가들이 1차 심사하여 130개의 상품을 선정하였다.
  - 시는 1차로 선정된 상품 130점을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와대 사랑채(9.28~29), 명동 글로벌 문화관광센터(10.4~10.6),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10.9~10.10)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전시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서울의 이미지를 담은 문구류, 의류, 악세사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디자인의 서울상징관광기념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 휴일에도 전시를 하고 있어 나들이 삼아 한번 가 볼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장을 찾는 시민·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선호하는 서울상징관광기념품을 평가하고 10개씩을 선정하게 할 계획이다.
    - 수요자의 니즈가 반영된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뛰어난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관광기념품을 구매하는 시민·관광객 대상으로 선호도 평가가 진행된다.
    -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 이렇게 2차 시민·관광객 평가 결과를 산출해 1차 전문가 심사결과와 함께 반영해 상위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100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서울상징관광기념품 100선은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이 운영하는 기념품샵,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지원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할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서울상징관광기념품 100선은 서울시 인증마크를 달고 시민청 다누리,

청와대 사랑채, 디자인태그 등 서울시 관련 기념품샵, 공공기관·민간에서 운영하는 기념품샵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판로지원을 위해 편람집을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서울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서울관광홈페이지 등 서울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 김기현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기념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릴레이 방식의 전시회를 통한 시민·관광객 평가를 기획하였으며, 전시회장을 방문하시면 서울상징관광기념품을 내 손으로 선정하는 재미와 서울의 이미지를 담은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우수한 관광기념품은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에게 서울을 알리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하였다.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02-2133-2777) | 등록일 : 2013.09.27)

## [부산광역시] 부산시, 국경절 맞아 중국 관광객 맞이 준비 완료!

-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10.1.~10.7.)동안 2만 5천여 명의 중국관광객 항공, 크루즈 등을 통해 부산 방문 예상
  - 부산시, 구군 및 부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광특수 대비 종합상황반 운영 및 관광수용태세 점검으로 중국 관광객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 김해공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환영행사 및 서면, 광복동, 해운대 일원에서 다양한 콘서트 개최, 부산역에선 S-train(남도해양열차)과 가을테마관광투어 연계
- 중국 국경절 연휴(10.1.~10.7.)기간 동안에 중국관광객 15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가 중국인 관광객 맞을 준비에 나섰다.
    - 이번 연휴기간 동안 김해공항과 국제크루즈를 이용해 부산을 직접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1만 5천여 명, 서울과 제주도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올 중국관광객이 1만여 명 등 총 2만 5천여 명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부산시는 대규모 중국 관광객의 부산방문에 대비하여 구·군, 유관기관,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등과 관광종합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광불편사항 개선 및 관광수용태세 점검, 관광객 환영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부산시와 구·군은 10월 7일까지 국제크루즈터미널, 쇼핑센터, 음식점, 호텔,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안내판, 음식메뉴판, 관광시설물, 종사원의 친절, 청결, 숙박시설 요금표, 택시부당요금 및 콜밴 등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관광협회 합동으로 이 기간동안 부산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콘서트 등도 준비했다. 우선,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인 9월 30일에는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 또한, 국경절 기간동안 국제크루즈를 이용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을 위해 영도 크루즈국제터미널에서는 우리의 전통춤 음식 체험인 떡메치기, 널뛰기 등 성대한 환영 및 환송행사를 열며 관광안내소, 환전소, 기념품 판매소 운영 및 부산지도,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등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부산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 광복동, 광안리, 해운대 일원에서 소규모 한류 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부산그랜드세일 행사가 중국 국경절연휴와 겹쳐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부산역에선 9월 27일부터 관광테마열차인 S-train(남도해양열차)이 1일 1회 운행 예정이어서 가을을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해 편하게 경남 하동, 여수까지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국경절 기간동안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부산이미지를 주고 다시 부산에 오고 싶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중국관광객이 유독 이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시를 즐겨 찾아 올 수 있는 다양한 우수 관광 상품을 준비하겠다.” 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1-888-4274) | 등록일 : 2013.09.30)

## [부산광역시] 부산시, 일본 의료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 9.30.~10.2.(3일간) 일본(도쿄, 나고야, 오사카) 의료관광관계자 및 일반인 체험단 20명을 초청하여 ‘의료관광 팸투어’ 실시
  - 고신대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누네빛안과, 센텀치과 등 부산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운대, 동백섬, 이마트, 부전시장, 남포동 등 시내투어로 진행
- 부산시는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소개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3일간)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 지역 의료관광 관계자(롱스테이재단, 여행사, 기자) 및 일반인 체험단을 초청하여 ‘의료관광 팸투어’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주)코비즈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일본의 신문 기자, 여행사, 롱스테이재단 관계자, 일반 의료관광체험단 등 20명이 부산을 방문하게 된다. 팸투어 기간동안 초청 방문단은 고신대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누네빛안과, 센텀치과 등을 방문하여 부산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체험 하게 된다. 또한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부전시장, 남포동 등 부산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진다.
    -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는 일본의 해외 장기체류 형 의료관광 수요를 선점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선진화된 의료기술, 요양병원, 장기체류오피스텔 등을 일본 현지에 소개하여 부산이 장기체류 형 의료관광지로도 최적지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 한편, 일본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 여전히 방한 관광객 수 1위의 국가이며 지진과 원전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불안감으로 실버 인구의 해외 장기체류형 의료관광 수요가 늘고 있다.

(부산광역시, 식의약품안전과(051-888-3961) | 등록일 : 2013.09.30)

## [부산광역시] 부산과 경남을 잇는 뱃길복원을 위하여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 9.25. 10:00, 을숙도 선착장에서 을숙도~화명~물금 코스를 운항하는 낙동강 생태탐방선 첫 시범 운항 개시
- 부산시는 내년 7월 낙동강 뱃길을 잇는 생태탐방선 운항을 앞두고 9월 25일부터 첫 시범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300리 아름다운 낙동강 물길을 잇기 위한 첫배가 출항하는 것이다
- 이번 시범운항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총 5차례 진행되며 을숙도에서 구포, 화명을 거쳐, 물금, 원동까지 편도 33km의 코스로 왕복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하여 운항경로, 주변 볼거리 등 인프라를 조사하고 자전거 동호회, 학생, 가족 이용객 등 다양한 계층의 선호도를 조사한 후 올 10월 선박 제작에 착수하여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생태탐방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 9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첫 번째 시범운항에는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탐방선 운항 구간의 지역구 국회의원(박민식 의원), 시의원(손상용, 이상갑, 박석동 의원)을 비롯하여 어촌계, 환경단체, 관광해설사, 문화단체, 교수, BDI, 등 다양한 계층이 승선하여 성공적인 운항을 위한 자문을 하게 된다.
- 생태탐방선 운항구간은 당초 을숙도에서 화명까지 낙동강의 부산구간만을 계획 하였으나 지난 5월 부산, 경남 현안조정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양 시도가 공동 추진을 합의하고 6월 코스탐사와 7월 실무협의를 거쳐 원동까지 코스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 양 시도는 본 사업을 통하여 낙동강이 단순한 볼거리만으로서의 관광자원이 아니라 관광객의 호기심이 발동되고 재미가 배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 낙동강과 관련 있는 이야기, 낙동강을 노래한 시, 문학작품, 관련 인물, 주변 농어민들의 노래, 낙동강 나루터에 얽힌 민화·설화 등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시 관계자는 “양 시도의 공감대 속에 추진되는 본 사업은 부산과 경남이 서로 이웃 도시로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1-888-4294) | 등록일 : 2013.09.24)

## [대구광역시] 편리해진 시티투어 대구 관광이 즐겁다

### - 대구시, 10월부터 시티투어 코스 개편

- “도심순환코스(2층 버스)는 더 편리하게, 팔공산 관광은 가이드와 함께 하세요.”
- 대구시는 2013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및 가을 관광 시즌을 맞아 도심순환 코스(2층 버스), 팔공산 코스 등을 오는 10월부터 개편해 운행한다.
  - 도심순환 코스는 기존 1일 4회 120분 배차간격에서, 5회 90분 배차간격 운행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약령시, 의료선교박물관, 동성로, 두류공원(이-월드) 기존 코스 외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김광석길」과 「달성공원·삼성상회 터」, 「봉산문화거리」를 신설하고, 주말에는 2층 버스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등 학습하는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1일 1회 승차권 구입으로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고 10인 이상 단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있다.
  - 팔공산은 1일 4회 순환 코스에서 1일 1회 해설안내 코스로 개편해 매일(월요일과 추석·설 명절 제외) 반월당에서 출발, 동대구역을 거쳐 불로동고분군, 동화사,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방짜유기박물관 등 코스마다 정차해 문화관광 해설을 들을 수 있다.
  - 정기투어는 권역별 5개 코스에서 전통문화(녹동서원, 김광석길, 옷골마을, 의료선교박물관), 역사탐방(대구박물관, 인흥마을, 대구근대역사관, 약령시한의약박물관), 과학환경(대구과학관, 대구수목원, 강정고령보&디아크) 등 주제별 3개 코스로 개편해 요일별 코스를 지정·운영하고, 일요일에는 관광지와 체험, 계절(농산물 수확, 꽃, 축제)을 엮은 테마투어로 운행한다.
  - 팔공산, 정기·테마 투어는 삼성플러스관광([www.daegucitytour.com/053-627-8900](http://www.daegucitytour.com/053-627-8900))으로 예약하면 된다.
- 대구시 김대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코스 개편을 통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근대골목, 동성로 등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능을 더욱 강화했고 순환형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족·단체 탑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2층 버스는 대구 관광지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외부 래핑을 새롭게 해 많은 시민들과 외래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 시티투어 하루 이용요금은 일반 5,000원, 중고생 4,000원, 어린이·경로·장애인 등 3,000원으로 실속 있는 가격으로 대구의 관광지를 두루 볼 수 있다. 유료관광지

입장료, 식사는 개별 부담이다.

(대구광역시, 관광문화재과(053-803-3888) | 등록일 : 2013.09.24)

## [인천광역시] 재미와 환상이 가득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착공

### - 로봇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 마침내 첫 삽

- 인천시는 9. 26일 청라국제도시 7블록에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 착공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학재·윤관석·안덕수 국회의원 등 많은 주요 인사와 청라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인천로봇랜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인천로봇랜드는 로봇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로 청라국제도시(서구원창동 440-1번지) 76만 7천㎡에 약 7,584억원(국비 595억원, 시비 1,475억원, 민자 5천 5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되는 국책사업으로 로봇산업진흥시설(로봇산업진흥센터, 로봇연구소)과 유원시설(테마워터파크), 부대시설(콘도, 상업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 인천시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로봇산업진흥시설”은 2015년까지 완공하고, “유원시설” 및 “부대시설”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2016년에 로봇랜드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에는 50여개의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들어서며 연 4,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7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의 지리적 이점으로 로봇랜드와 신세계백화점 등이 어우러져 놀이와 쇼핑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많은 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착공식을 주최한 인천시는 로봇산업이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이끌고 인천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좀 더 의미 있는 착공식을 기획하여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달여의 준비기간끝에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했다.
  - 특히, 단순한 착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2톤이 넘는 거대 공룡로봇에서부터 크기가 30cm에 불과한 미니로봇까지 각종 최첨단 로봇을 전시하여 로봇의 발전상과 전망을 보여줌으로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갈채와 인천이 로봇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송영길 시장은 “인천로봇랜드가 조성되면 인천은 전세계 로봇문화의 발상지로 새롭게 우뚝 설 것이며 첨단 로봇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032-440-3107) | 등록일 : 2013.09.26)

##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관광 활성화 손잡아

### - 25일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 창립, 공동 마케팅·홍보 추진

-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려운 지역 관광여건을 극복하고 양 지역간 협력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기 위해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 창립 총회를 25일 개최했다.
-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역관광체계 구축과 관광진흥,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해외 마케팅 중심으로 우선 실무협력을 추진해왔다.
- 특히, 강운태 시장은 지난 4월부터 간부회의를 통해 “관광분야는 광주와 전남이 같이 가야하므로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전세기 정기노선 취항도 개발해야 한다”라며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광주·전남 관광시대를 여는 틀을 만들 것”을 강조해왔다.
- 이에따라, 남도지역의 대표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기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쳐 지난 3월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천진·심양 공항간을 연결하는 전세기를 유치해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중국관광객이 4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3회에 걸쳐 양 지역 관광국장과 관광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전남 관광홍보단을 구성해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 발족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4월과 7월에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양 지역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추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의회를 창립하게 됐다.
-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는 양 지역 부시장, 부지사가 매년 순번제로 회장직을 수행하며 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업계, 관광학계, 숙박·음식업계 등 관광 관련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전남 관광진흥 홍보와 마케팅 공동추진, 광주·전남 관광코스 공동개발, 중국·일본 등 정기노선 유치와 다양한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공동 협의체로 운영된다.
-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중국관광객 유치증진 마케팅활동 강화, 해외(중국,일본) 현지 온라인 매체(포털, 블로그, sns 등) 활용 마케팅, 양 지역에 체류하는 유학생 참여 관광 홍보 및 남도답사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류스타 활용 국내외 홍보 사업 등

4개 안건을 공동사업으로 확정하고 사업비 공동 확보와 구체적인 협력 세부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진흥협의회 창립 운영으로 양 지역간 관광홍보와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양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관광 경쟁력도 높이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더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 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30) | 등록일 : 2013.09.25)

## [대전광역시] 아시아 와인허브도시 대전-명실공히 국제행사 면모

- 20개국 243개 기관단체·기업 340부스 유치... 2012년 업체 대비 130% ↑

- 내달 3일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치러지는 2013년 대전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이 질과 양에서 명실공히 국제행사로서 면모를 갖췄다.
-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와인축제에 20개국 243개 기관·단체·업체에서 340개 부스 유치가 완료되어 지난해 대비 참가업체는 130%가 증가했다면서 이번 페스티벌에서 30개국 1500종의 와인을 무료 시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는 해외와인 64개 업체 84개 부스가 참가한다면서 유럽와인의 본고장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대거 참여한다. 독일에서는 모젤와인, 베른카스텔러, VDP가 참여하고, 프랑스에서는 사포 몽투스, 까오 와인협회, 비노발리가 참여한다. 또 이태리 와인수출협회를 비롯 미국, 호주 등 유명 와인업체에서 참여가 확정되어 와인허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이와 함께 국내 와인·전통주는 123개 업체에서 154개 부스를 운영한다. 국내와인은 그랑꼬또와인, 와인코리아, 영천와인 등이 참가하고 수입상은 롯데주류, 동원와인 플러스 등이 참가한다. 음식부스는 56개 업체 102개 부스에 호텔리베라, 인터시티, 유성호텔, 성심당, 한국조리사중앙회, 우송대 등에서 참가하여 행사의 묘미를 더하게 된다.
- 지난해에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엑스포 다리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야외만찬인 ‘다리위의 향연’은 이미 800명의 사전접수가 완료되어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 특히, 다리위의 향연은 미국에서 열린 ‘2013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 프로그램’에서 3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한빛탑 스카이라운지에서 펼쳐지는 와인파티인 ‘구름위의 산책’도 사전 접수하여 1050명을 신청을 완료했다.
- 또한, 페스티벌의 특별 이벤트로 아시아인 최초로 마스터 오브 와인 (MW) ‘지니 조 리’ 세미나가 열리게 되며 비빔밥 버거로 유명한 세계적인 셰프 ‘안제로 소사’의 마스터 클래스 강연과 쿠킹쇼가 진행되며 프로와 아마추어 바텐더가 한자리에 모여 열띤 경연을 펼칠 바텐더 대회도 열려 관람객들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며, 30개국 1500여종의 와인을 무료시음할 수 있다.
- 염홍철 대전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로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면, 대전경제에 열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점과 대전와인트로피 선정 제품의

유통으로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 라고 말하면서 “대전에 이익이 되면 소신껏 추진해야 하는 페스티벌” 이라며 행사의 가치를 강조했다.

- 한편, 본 행사에 앞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일간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제1회 대전와인트로피’ 에서는 세계 2600여종에 7500여병의 와인이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품평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외 심사위원 52명을 비롯한 총 103명의 심사위원들도 와인 품평 준비를 완료했다.

(대전광역시, 2013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추진단(042-860-0171) | 등록일 : 2013.09.26)

## [대전광역시] 대전시, 오감만족 ... 다양한 국제행사 다음주까지 쪽~

-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지식쌓기 등...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쪽~

- ‘오감만족’ 도시 대전에서 대전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전의 위상에 걸맞은 국내외 행사가 24일부터 다음주까지 쪽 이어진다.
- 대전시는 이번주부터 10월 초까지 ▲WTA 대전 하이-테크페어 ▲대전세계혁신사전 포럼 ▲대전와인트로피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2013 세계한민족축전 ▲2013 벤처국방마트 ▲2013 대전 국제푸드&와인 페스티벌 ▲APPAC(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센터 연합회) 대전총회 ▲2013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고 밝혔다.
- 먼저, 24일은 오전 10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UNESCO-WTA 국제공동워크숍이 ‘R&BD 3.0 : 창조경제에서의 과학기술 단지’ 라는 주제로 개최해 27일까지 진행된다.
- 이와 함께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대전시-WTA-UNESCO가 공동으로 ‘대전 세계혁신포럼 사전포럼’ 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사전포럼을 통해 내년도 ‘대전세계 혁신포럼’ 창립해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지식 및 기술 교류 장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또, 25일 개막하는 WTA 대전 하이-테크페어(과학기술박람회)는 27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려 국내외 127개 기업이 참여하며 외국바이어들이 참여해 지역업체들의 수출계약, 상담 등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대전시립미술관 등에서는 2013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 국제콩쿠르 대회가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또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대전엑스포 수상공원 일원에서는 전국에서 총출동한 선수 등 3000여명이 참여해 2013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 2013 세계한민족 축전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일간 해외동포 등 400여명이 우리지역을 방문해 대전의 문화, 예술 발전상을 체험하게 된다.
- 그리고,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유성호텔에서 세계 2,500여종의 와인이 출품돼 그 품질을 평가 받는 대전 와인트로피 행사가 진행된다.
- 연이어 내달 3일부터 6일까지는 2013 대전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이 대전컨벤션 센터와 무역전시관 등 일원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 또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대전시와 육군본부 주관으로 계룡대 일원에서 2013 벤처 국방마트가 열리며 이 행사와 함께 2일부터 6일까지 계룡군문화축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도 연계해서 열린다.
- 내달 7일부터 9일까지는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해외 문화예술인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2013 AAPPAC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센터 연합회)대전 총회가 열린다.
- 대전시는 이러한 국내외적 행사가 대전에서 연이어 개최되면서 대전의 국제적 위상도 높여 주는 것은 물론 장단기적으로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공보관실(042-270-2512) | 등록일 : 2013.09.25)

## [울산광역시] 울산시, 주한외교사절 초청 ‘울산 팸투어’ 개최

- 9월 30일 ~ 10월 1일 … 대사, 언론사 및 관광청 관계자 초청
- 전국 관광협회장도 울산 방문
  
- 2013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울산시가 주한외교사절을 초청하여 울산의 곳곳을 둘러보는 행사를 마련한다.
- 울산시는 울산시관광협회 주관으로 9월 30일 ~ 10월 1일 1박 2일 동안 ‘주한외교사절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초청 대상자는 세르비아,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등 20개국과 독일, 중국, 대만 등 언론사 및 관광청 관계자 등 총 37명이다.
- 또한, 이번 팸투어에는 전국 관광협회장 및 임원진 43명도 함께 울산을 방문한다.
  - 이들은 울산 방문 첫날인 9월 30일,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태화강대공원과 용기장인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용기마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간절곶을 둘러본다.
  - 오후 6시부터는 현대호텔울산에서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만찬이 이어진다. 만찬에서는 울산관광 홍보영상 상영과 울산시립국악무용단의 축하공연, 인사말씀, 축사, 건배사 등으로 진행된다.
  - 둘째 날인 10월 1일에는 현대중공업 산업탐방을 시작으로 고래박물관 및 고래생태체험관, 반구대 암각화를 관람한다.
-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울산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관광과(052-229-3852) | 등록일 : 2013.09.27)

## [울산광역시] 울산서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공동전략 논의

- 내달 2일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 개최
- '트래블 마트, ATM 2013' 도 열려
  
-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위해 산악관광 도시·기관 대표단 방문
  -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 관광지인 뉴질랜드 퀸스타운시, 스위스 엔겔베르그 티틀리스, 일본 토야마시, 중국 허베이성의 도시·기관 대표단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 까지 울산을 방문하여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 울산시는 알프스 공동 브랜드를 지닌 도시들의 공동협력과 발전을 위해 10월 2일 오후 4시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협의회는 울산시가 영남알프스 세계화를 위해 '알프스'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적인 산악관광 도시 및 기관과 추진해 온 교류협력 사업으로, 그간 국내외 언론사 교차 방송 및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왔다.
    - 특히, 올해는 울산과학대와 QRC 대학(뉴질랜드 퀸스타운 소재)과 관광서비스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관광업계간 상호교류회(토야마), 중국 허베이성 여유교역회 참가 등 교류 분야를 더욱 확대했다.
    - 울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알프스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의 중심역할을 하고 선진 관광 노하우 공유를 통한 新관광도시 울산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방문단은 개별 도시의 산악관광 특징과 정책을 발표하고, 향후 도시 간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 협력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회의에는 UN 세계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 뉴스레터 편집장이자 현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김철원 원장이 '관광 협력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다.
      - 또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남알프스 역사대축제' 기간에 열리는 울주 오디세이 행사 시 간월재 등에 공동홍보관을 운영하고, 회의 행사장에는 울산의 관광기념품 및 울산관광 사진전을 개최하여 알프스 산악관광 도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울산과학대 관련학과 학생들을 진행 요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국제회의의 경험을 통한 인재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 「알프스 도시간 트래블마트(Alps Travel Mart 2013)」 개최
- 울산시는 올해에는 도시간 산악관광 협의회 회의의 연계행사로 관광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도시·기관간 실질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Alps Travel Mart 2013(ATM2013)을 개최한다.
  - 행사는 울산관광협회 주관으로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에 앞서 오후 2시 롯데호텔울산에서 국내외 여행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도시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도시별 ‘관광설명회’와 대표 관광 상품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트래블마트’로 진행된다.
  - 울산시는 ‘트래블마트, ATM2013’에서 리조트, 고래유람선, 면세점 등 지역의 숙박, 쇼핑시설과 울산 관광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와 함께 국내 메이저급 여행사와 알프스 도시의 여행사간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울산시는 트래블마트에 참가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해 10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팸투어를 실시하여 울산관광자원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영남알프스 역사대축제, 산업시찰, 역사·문화 유적지 등 울산 곳곳 방문
- 이튿날인 10월 3일(목) 방문단은 영남알프스의 산세와 트레킹 코스, 레저 스포츠 등 산악관광지로서 영남알프스만의 특별한 매력을 체험하기 위해 영남알프스 간월재를 올라, 역사대축제가 열리는 신불산 정상의 황금빛 역사평원을 걷고, 산 정상 음악회를 관람할 예정이다.
  - 이날 간월재에서는 ‘영남알프스, 영혼의 소리로 품다’라는 주제로 울주 오디세이가 개최되어, 오카리나, 피아노, 창(唱)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가 연출된다.
  - 산악관광지 방문에 이어 방문단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를 비롯한 산업관광과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 역사 문화지, 옹기마을, 태화강대공원 등 생동력 넘치는 울산의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교류를 넘어 관광비즈니스 매칭, 관광 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세계 알프스 산악관광 도시협의회’는 울산시가 주축이 되어 관광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 첫 사례로 뉴질랜드 퀸스타운시, 스위스 엥겔베르그 티틀리스, 중국 허베이성의 도시·기관 대표단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울산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개최됐다.

(울산광역시, 관광과(052-229-3891) | 등록일 : 2013.09.27)

## [울산광역시] 울산시,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 유치 적극 나서

- 27일 ~ 28일(1박 2일)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 동남아 현지 여행업 관계자, 기획자 등 26명 울산 방문
- 울산시는 울산 관광을 알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9월 27일 ~ 28일 1박 2일 동안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는 동남아시아 현지 여행업 관계자, 기획자 등 26명이 초청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동남아 신흥국가 여행업 대표들이 초청되어 9월 24일(화) ~ 29일(일) 6박 7일 동안 울산, 서울, 부산, 전북, 제주 등 5개 주요 도시들의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관광상품 개발 목적을 위해 마련됐다.
    - 이들 방문단의 울산 방문 일정은 간절곶, 장생포 고래박물관, 태화강대공원, 외고산 용기마을, 석유화학단지 공단야경 등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둘러본다.
  - 또한, 이들은 기존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팸투어에 그치지 않고 언양불고기단지 음식점(3곳), 관내 숙박업체(3곳), 관광지 인프라(단체버스 주차장, 화장실, 도로여건) 등 여행상품개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도 꼼꼼히 챙겨볼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울산지역업체(국내여행업) 관계자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상담과 홍보를 통해 동남아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테마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김혜정 전문위원은 “지난 8월 수도권 여행사 울산관광 홍보 설명회를 통해 울산의 우수한 관광자원들을 접하게 됐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이 활발한 울산은 향후 한류붐의 중심에서 관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방문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 울산시 관계자는 “일본과의 국제 정세 악화 및 중국의 관광법 개정 등의 관광산업의 주요 악재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선점을 위해 인근 도시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라고 말했다.
    - 한편, 울산시는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과 10월에 해외 관광 바이어 및 인근도시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홍보설명회와 팸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관광과(052-229-3893) | 등록일 : 2013.09.26)

## [울산광역시] 울산시,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체험과 배움, 감동이 있는 감성체험 신(新)관광도시 울산”
  - 울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및 방향 제시
- 울산시는 9월 24일 오후 2시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박성환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울산발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2012~2016)은 문화체육관광부의 10년 단위 법정 계획인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과 연동되어 추진되는 계획으로 정부 관광개발계획의 실행계획적 성격을 띄고 있다.
    - 또한, 울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는 관광개발 사업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선 등의 관광 진흥사업을 포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시의 관광정책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 ‘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은 ‘체험과 배움, 감동이 있는 감성체험 신 관광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세부 목표로는 ‘생태와 산업이 어우러진 브랜드형 신흥 관광도시’, ‘울산 1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명소형 관광도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 ‘관광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스마트 관광도시’가 제시됐다.
    - 추진 전략으로는 ‘고래 테마의 관광 상품 체계화’, ‘산업관광의 네트워크화’, ‘태화강의 녹색 관광 상품화’ 등을 통한 「3색 테마도시 울산 구현」, ‘기존 특화 관광자원의 상품성 강화’, ‘신규 이야기 자원의 명소형 관광자원 육성’, ‘울산 12경 관광상품화’ 등을 통한 「이야기가 있는 찾고 싶은 울산」육성, ‘강동권 국제적인 관광기반 확충’,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교통 관광상품의 다변화’, ‘숙박시스템의 정비·구축’, ‘KTX 개통에 따른 관광시스템 개선’, ‘관광 안내 및 홍보체계 선진화’, ‘도심관광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한 「체계화 된 관광수용태세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세부 사업으로는 관광단지(강동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고래문화마을 조성, 서생포 왜성 관광자원화사업,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 조성, 영남알프스 웰컴센터, 해안 디자인 개선사업 등 10개의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고래바다여행선 운영, 산업관광 지원체계마련, 통합안내체계 구축, 마운틴 탑 페스티벌 등 8개의 관광진흥사업으로 짜였다.
  - 사업비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1,484억 원, 민간투자 1조 2,943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4,4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과의 연동, 중앙부처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등을 거쳐 계획이 수립된 것이니만큼, 공공부문의 사업 추진 및 투자재원 확보 시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5개년 단위의 연동계획임을 감안, 산업, 생태, 산악, 해양,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진흥을 통해 울산의 관광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관광과(052-229-3883) | 등록일 : 2013.09.23)

## [세종특별자치시] 놀고먹는 캠핑은 가라...문화가 있는 즐거운 체험

- 합강 오토캠핑장, 내달 4~6일 100가족 참가 문화캠핑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제1회 즐거운 문화캠핑파티 공간문화작가와 Book家 Book家!’ 를 개최한다.
- 이번 캠핑행사는 기존 캠핑의 형태에 벗어나 어른들은 문화를 즐기고 아이들은 자연을 배우는 체험캠핑으로 진행된다.
- 공간작가들과 토크쇼, 박형섭 상상크리에이터와 상상력 키우기, 김인자 글 작가와 놀자, 김이슬 그림 작가와 놀자, 시를 노래하는 가수 탁영주의 스토리텔링 콘서트 등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 강근규 치수방재과장은 “이번 캠핑이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캠핑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세종시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제1회 즐거운 문화캠핑파티 공간문화 작가와 Book家 Book家!’ 참가신청은 캠핑지도([www.campingjido.com](http://www.campingjido.com))에서 가능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치수방재과(044-300-5323) | 등록일 : 2013.09.28)

## [경기도] 경기도, LA 한인교포 마음 사로잡았다

- LA 여행업계 대상 경기도 관광 설명회로 경기도 관광 알려
  - LA 한인축제 홍보관 운영, 도자기 체험·장승 깎기 시연 펼쳐
- 경기도가 LA 현지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지난 25일(수) 한국관광공사 LA지사에서 LA 여행업계 관계자와 현지 언론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관광 설명회」를 개최, 경기도 매력 알리기에 나섰다.
- 경기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한 설명회에서 세계 유일 분단국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세계 4대 테마파크 에버랜드 등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개별관광객, 청소년 교육, 기업 인센티브, 노인 단체 등 타깃별 맞춤형 추천 여행 코스를 제시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 특히 방한 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꼽는 DMZ를 알리며 DMZ 투어의 대표적 코스인 임진각평화누리-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비무장지대 유일의 미군 기지였던 캠프그리브스가 안보체험시설로 재탄생 해 일반에 공개됐다는 사실도 비중 있게 전달했다. 현재 DMZ 일원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0만 명 이상이다.
- 금번 설명회를 준비한 오용수 경기관광공사 마케팅 본부장은 “한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1,242만 명)가 거주하며 서울의 17배 면적을 지닌 경기도는 첨단·역사·자연·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며 “서울, 인천과 함께하는 경기도 관광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앞으로 LA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일정을 포함한 여행상품 개발·홍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또한 경기관광공사는 LA 한인축제(26-29일, LA 서울국제공원)에 경기도 홍보관을 운영하여 한인교포와 외국인들에게 경기도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 홍보관에서는 한인축제 인기 체험으로 자리 잡은 도자기 시연과 증정, 장승 깎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특히 지난 3년간 한인축제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도자 만들기 체험은 올해도 관람객들이 도자기를 받기 위해 수십 미터씩 줄을 서는 등 진풍경을 연출 했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031-259-6989) | 등록일 : 2013.09.29)

## [경기도] 경기도, 민통선 안보체험시설 명품 프로그램 개발 총력

- 경기도, 오는 10월 15일 파주지역 민통선내 『舊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공사완료에 따라 명품 안보체험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안) 1박 2일 및 2박 3일 두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입소식, 병영체험, 안보교육, 안보현장 답사, 자전거 투어 등 내용 담겨져
- 경기도, 10월 중 안보체험시설 명칭 공모결정, 11월부터 안보체험 프로그램 본격 운영

- 경기도가 『舊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명품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파주시 군내면 민통선내 『舊 캠프그리브스』 미군 장교숙소를 리모델링한 안보체험시설이 오는 10월 15일 공사 완료된다. 이에 따라 도는 명품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 최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안보체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 운영프로그램(안)은 1박 2일 및 2박 3일 두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입소식, ▲군가배우기, 제식훈련, 수류탄 투척왕 뽑기 등 병영체험, ▲한미 양국 일선 사단의 안보교육, ▲군가경영대회, ▲전차탐승, 시뮬레이션 사격체험 등 전투장비 탐승·체험, ▲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등 안보현장답사,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 걷기 및 자전거 투어 등으로 향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프로그램 자문을 위해 참여한 전문가들은 운영프로그램(안)이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참신해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겠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 인증, 체험 참여자의 안전, 양질의 식사, 교육기관의 친절 등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육군 제1보병사단, 파주시, 경기관광공사가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과 ‘국민 나라사랑운동’ 확산 차원에서 조성한 안보체험시설 운영규정(안)과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했다.
- 경기도는 오는 10월 중 인터넷 등을 통해 안보체험시설 명칭을 공모결정하고, 현판 제막식 등을 추진한 후 11월부터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 안보체험시설은 캠프그리브스 미군 장교숙소 4층을 리모델링해 1층은 사무실, 방송실, 창고 등의 용도로, 2,3층은 각 12실(10인용, 240명 숙박가능) 숙소로 이용되며, 4층은 200여명 수용이 가능한 강당 및 식당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舊 캠프 그리브스』는 북쪽방향으로 통일대교 넘어 임진강 옆에 위치해 비무장지대(DMZ)와 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1953년 7월부터 미군이 주둔하다가

2007년도에 반환된 기지로서 영화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를 지원하는 전투  
부대로도 유명하다.

(경기도, DMZ정책과(031-8030-2663) | 등록일 : 2013.09.23)

## [강원도]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정부 지원방침 확인!

- 진입교량 건설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부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오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레고랜드 코리아 등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총 5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 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 ②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
  - ③ 해제된 보전산지내 기업의 조기 입지 지원
  - ④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교체투자 활성화
  - ⑤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
-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도(레고랜드)↔근화동 간 연결교량,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전기, 가스, 통신 등)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투자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설치 등 재정지원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추진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침 발표에 따라, 향후 도는 중앙부처와 지역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는 진입교량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좋게(B/C 1.0이상)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진입교량 건설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와 관련, 최근 강원도와 멀린사간 체결하게 되는 본 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몇가지 내용들은 그 동안 춘천시를 포함한 국내 참여사들과 충분히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 제기된 내용들을 협약서에 반영하는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속히 보완한 후 조만간 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계기로 춘천을 애니메이션 및 로봇체험박물관 등과 연계한 어린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춘천을 세계적 명품 가족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힘

(강원도, 글로벌사업단(033-249-3611) | 등록일 : 2013.09.25)

## [강원도] 국내외 한류 관광객 2만여명 원주로 몰려온다!

- 「2013 강원 K-POP페스티벌」, 9.28(토) 원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
- 전세계 61개국 1,250개팀 예선을 거쳐 14개국 14개팀 커버댄스 본선 경연
- 카라, 유키스, 빅스, 달샤벳, 스피카 등 최정상 K-POP아티스트 참가
- 국내 및 해외 10여개국 방영으로 강원관광 홍보 기대

- 전 세계인이 즐기는 한류축제 「2013 강원 K-POP페스티벌」이 9.28(토) 오후 7시 원주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과 K-POP을 통해 강원관광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방문위원회, 원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의 후원, (주)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가 특별후원 하는 행사에 2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전세계 61개국 1,250개팀의 온라인 예선과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현지 본선을 거쳐 선정된 14개국에서 참가하는 14개팀 80여명의 K-POP 커버댄스 챔피언 대표팀의 최종결승 무대와 함께 한류를 이끌어 가는 원조 K-POP스타인 카라를 비롯해 유키스, 빅스, 달샤벳, 스피카, 에이젝스, 에이프린스 등 국내 정상급 K-POP 아티스트의 콘서트 무대로 어우러질 예정으로, 특히, 본선 결선은 전세계 10개국 이상에 방영될 계획이다.
  - \* 14개국 : 미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호주, 터키, 헝가리,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 \* K-POP 커버댄스 : 외국인들이 K-POP 스타들의 노래와 춤, 스타일 등을 따라 하는 것
- 또한, 해외 본선을 거쳐 결선에 참가하는 전 세계 커버댄스 챔피언들을 사전에 초청해 “2018동계올림픽 알리미” 위촉과 함께 평창과 원주의 아름다운 관광지 및 문화체험과 행사 홍보를 위해 9.27일(금) 오후 5시에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14개국 참가자들이 플래쉬몹 퍼포먼스를 벌인다.
- 한편, 도에서는 2011년 평창 알펜시아에서 K-POP콘서트를 처음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1만여명(외국이 1,108명)이, 2012년 강릉 종합경기장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18천여명(외국인 1,531명)이 몰려 큰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올해에도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구미주, 다문화가정 등 2천명의 외국인이 원주를 찾을 예정이다.
- 콘서트는 무료관람권으로 당일 현장에서도 오후 1시부터 티켓을 배부할 계획이며 관람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원주시 관광과에서(033-737-5122)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강원도(문화관광체육국장 신만희)는 “올해 K-POP페스티벌은 특히, 전세계 K-POP 한류팬들이 강원도에서 하나가 되는 뜻 깊은 행사로 K-POP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관광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으며, 특히,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관광마케팅과(033-249-2862) | 등록일 : 2013.09.25)

## [충청북도]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도내 관광 홍보효과 특독

-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의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취재결과가 중국 런런왕과 시나 웨이보 등 인기 SNS를 통해 32만 회 이상 노출되는 등 도내 관광 홍보효과를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도는 충북 관광자원의 대 중국 홍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SNS 기자단으로 선발, 지난 8월 31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 중이다.
- 중국 내 인기 SNS 사이트 ‘시나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 런런왕(중국판 페이스북)의 경우 회원수가 3억 명 이상에 달하고, 정보전달력의 신속함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내에서 독보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취재 활동을 벌였으며, 충주세계조형선수권대회 및 탄금대, 미륵대원지, 송계계곡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 취재했다.
- 충청도는 1차 취재 성과분석 결과 런런왕 280,820회, 웨이보 40,447회 등 총 321,267회 홍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의 강력한 정보 전달력으로 충북 관광을 널리 알리게 되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한·중 친교 14억 중국인과 함께하는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한 2차 취재 활동을 시작하여 도내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공보관(043-220-2064) | 등록일 : 2013.09.26)

## [충청북도] '웰빙관광의 최적지, 충북으로 놀러오세요'

- 충청도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한 관광지에 대한 합동 홍보활동에 나섰다.
- 충청도는 실질적인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17일 오후2시부터 충청북도 관광협회 (회장 이상영)와 함께 도 관광항공과 직원,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안내원, 문화관광 해설사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충북관광지를 홍보했다.
- 이번 행사는 귀성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및 청주고속 버스터미널, 오송역 그리고 청주공항 등을 중심으로 충북 관광안내 홍보용 리플릿과 관광 안내지도를 배부하며 '웰빙관광의 최적지 충북'을 적극 알렸다.
- 도는 올 추석명절은 다른 해보다 연휴기간이 길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충북에 머무는 시간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들에게 가족단위로 함께 가볼만 한 충북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충북관광의 활성화 및 도내 관광객 유치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 공보관(043-220-2064) | 등록일 : 2013.09.23)

## [전라북도] 전북도,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박차

### - 전라북도만의 주요관광지, 전통체험을 연계한 전북형 특화상품 개발

- 전라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동남아 여행업협회와 공동으로 전북형 특화관광상품(SIT)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 도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류관광 붐 형성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내 한국관광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 동남 아시아 현지 여행사 대표, 관광상품 기획자 등 25명(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을 초청하여 전주 한옥마을, 국립 박물관 답사와 비빔밥체험, 태권도 시범공연 및 국악 뮤지컬 관람 등 이틀간에 걸쳐 팸투어를 진행,우리도의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였다.
- 답사단은 우리도의 전통문화, 음식, 공연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관광지와의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는 최근 중국과 일본, 동남아, 구미주권 여행업 관계자들을 초청, 팸투어를 수차례 실시하여 전라북도 관광자원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 특히 프리미엄식도락 여행, 선진 농업관광, 문화관광 교류상품 등 우리도가 가진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전북형 특화 상품에 중점, 국적별 선호 상품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 또한 무주 태권도원 개원을 앞두고 청소년과 구미주, 동남아 등을 겨냥한 태권도 체험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운영중이며 큰 호평을 얻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 도 관계자는 “SIT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 활동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와 같이 관심분야의 활동이 중심이 돼 여행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환경과 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힘을 쏟아 최근 어려운 관광시장에서 우리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광산업과(063-280-3394) | 등록일 : 2013.09.27)

## [전라북도] 전북의 매력에 푹 빠진 일본 관광단 러시 !

-태권도, 프리미엄 미식투어 등 SIT(특수목적관광) 관광단 유치성공

-태권도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일본 관광단 발길 붙잡아

- 일본 도쿠시마지역 관광단 약 40여명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태권도체험과 전북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갖는다.
- 이번 관광단은 전북도가 전북 특화형 태권도 관광상품 및 SIT(특수목적관광)개발을 위한 국내외 여행사 등 관련기관 대상 공격적인 세일즈콜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 일본 관광단은 태권도 체험을 통해 태권도와 ‘태권도성지 전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전주 한옥마을, 남부시장, 마이산 등 전북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 그동안 전북도는 고급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프리미엄미식투어 등 SIT(특수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적극적인 관광마케팅활동을 추진해, 지금까지 중국 청소년 문화관광교류단, 태권도체험 관광단 등 약 1,300여명이 전북을 방문하는 등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0월에만 일본 수학여행단 120여명, 일본 프리미엄 미식투어단 150여명, 중국 태권도체험단 20명이 예약된 상태이다.
  -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은 “전북에 태권도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정말 매력적 이었다.” 고 느낌을 전하기도 하였다.
- 전라북도의 관계자는 “일본관광객이 선호하는 미식과 태권도체험을 연계시키는 관광상품 전략이 통했다.” 며, 고부가가치 관광단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유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광산업과(063-280-3395) | 등록일 : 2013.09.25)

## [전라남도] F1 자동차경주대회, 지역경제 효과 특특

### - 수지 개선·직접소비지출 400억 효과·자동차부품산업 중심지 기대

-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F1국제자동차경주 한국대회의 개최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해 F1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 소비지출은 389억 원에 달하고 국가브랜드 가치상승효과는 5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에 F1경주장을 기반으로 모터스포츠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고급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한국의 고부가가치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 25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13 F1한국대회(코리아 그랑프리)는 전 세계 185개국에 TV로 중계돼 5억 5천여만 명이 시청해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위상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해 각 나라에서는 앞 다퉈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개최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첫 대회 때 준비 부족과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 차례의 F1대회를 통해 매회 1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오고 대회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적자 또한 크게 줄고 있으며 올해도 수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등 희망이 보이고 있다.
-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F1대회의 경우 389억원의 소비지출이 지역에서 발생했고 생산유발효과 1천266억 원을 비롯 부가가치 유발효과 494억 원, 고용유발효과 1천933명에 달했으며 해외미디어 노출효과 2조 8천억 원, 국가브랜드 가치상승효과도 5조 8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 F1경주장의 경제적 가치 및 산업적 파급효과도 막대하다. 국내 유일 국제자동차연맹(FIA) 공인 ‘그레이드 1’ 인증을 받아 올 한 해 228일이 임대돼 임대료 수입이 30억 원에 이른다.
- F1대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동차경주대회 16경기가 열리고 대회 때마다 100여 명의 선수와 500여 명의 대회 관계자, 평균 3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목포, 영암 인근에서 체류하면서 지역의 음식, 숙박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회당 2억 원 정도의 소비지출이 이뤄져 연간 30억 원에 달한다.
- 목포시내 D식당 주인은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리는 주말이면 외국인 등 외래 손님들이 크게 늘어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S모텔 숙박업소 주인도 “대회가 있는 주말에는 객실예약 문의 전화가 줄을 잇는다. 토요일은 객실 대부분이 들어찬다”고 말했다.

- F1경주장은 자동차산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신차 및 부품 성능시험을 1등급 경주장을 찾아 외국에서 해왔으나 이제는 영암 F1경주장을 활용해 개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보안 유지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 전남도는 또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사업비 786억 원)과 함께 경주장 시설과 연계한 ‘자동차 튜닝산업 핵심기반 구축사업’ (사업비 364억 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장의 기본 시설을 통해 고급 자동차 부품을 필두로 한 모터 클러스터 사업과 튜닝사업이 연계될 경우 전남은 한국의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 이개호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F1대회는 안정적인 대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며 “하지만 올해 대회를 기점으로 재정이 흑자는 아니지만 큰 폭의 수지 개선이 이뤄지고 F1대회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연관효과 등이 무한히 성장, 지역 발전의 견인축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F1조직위(061-288-5031) | 등록일 : 2013.09.25)

## [경상북도] 이스탄불-경주엑스포, 23일간 문화대장정 피날레

- 터키 이스탄불을 한국문화로 물들인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이 2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2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 이번 행사는 한국과 터키가 한국전쟁 이후 가진 가장 큰 만남으로, 한-터 신(新) 교류협력의 이정표가 됐으며, 양국 화합은 물론 인류의 화평과 번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상북도와 경주시, 이스탄불시가 공동 주최하고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양국 문화관광부와 유네스코, UNWO(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 등 18개 기관이 후원, 세계 40개국이 참가한 ‘범국가적 지구촌 문화축제’ 로 치러졌다.
  -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이란 주제로 전시·공연·영상·체험·특별행사 등 8개 분야에서 46개의 문화행사가 진행돼 신라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세계 문화가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다.
    - 특히 행사기간 동안 당초 목표한 250만명의 2배나 되는 약 480만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한국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터키 교류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지난 1998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개최한 첫 문화엑스포의 관람객 304만 명 보다 월등한 수치다.
    - 첫 번째 해외 문화엑스포였던 지난 2006년 ‘양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캄보디아 양코르와트) 관람객 45만 명의 10배가 넘는 기록이다.
    - 연간 1천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5위의 역사문화관광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열린데다 수준 높은 콘텐츠, 양국의 적극적인 마케팅 등이 주효했다.
- 폐막식은 22일 0시(한국시간 22일 오전 6시) 이스탄불의 상징인 아야 소피아 박물관 앞 광장에서 행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카디르 톱바시 이스탄불 시장과 외교사절, 이스탄불시민, 관광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 식전공연으로 경북도립국악단과 이스탄불시 공연단이 아름다운 몸짓과 소리로 선보였고, 23일의 일정을 총 정리한 영상물이 상영되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 이어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공동선언문’ 이 선포됐다. 양국 공동조직위원장이 번갈아가며 발표했다.

- 이스탄불-경주엑스포의 의미와 성과를 비롯해 소통, 평화, 희망, 존중, 나눔, 번영 등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한 뒤, 양국 간 새로운 문화비전을 천명했다.
- 선언문은 이어령 교수가 철학적 기초를 잡았고, 이스탄불-경주엑스포 이동우 사무총장, 표재순 총감독, 압둘라만 쉐인 이스탄불 문화사회실장이 함께 작성했다. 한국어, 터키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1개국어로 번역해 각 나라와 UN에 전달할 계획이다.
- 또 김관용 지사와 톱바쉬 시장은 서로에게 명예 시·도민증을 전달하고, 폐막을 선언했다.
- 폐막 이후 이번 엑스포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한 양국은 ‘포스트 이스탄불-경주엑스포’에 대한 논의에 한창이다.
  -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개최해 양국과 양 지자체간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 한-터 외에 실�크로드 상의 국가들을 전략적 동반자로 흡수해 글로벌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양 측은 교류 분야를 문화·스포츠, 산업·통상, 인적교류 등 3개로 나눠 조만간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문화·스포츠 분야에는 이스탄불시가 제공하는 부지에 ‘한국공원 조성 및 상징 조형물 건립’,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 건립’, 태권도 기술 전수 같은 ‘한-터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 분야는 ‘한-터 무역투자협력위원회 설치’, ‘이스탄불-경북 상공회의소 자매결연 체결’, 새마을운동 등 ‘농업정책 및 기술교류 협력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 인적교류 분야는 각 지자체에 상호 주재원 파견, 대학 간 자매결연 장려, 포함 제철공고 유학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 이밖에도 차기 2015년 경주엑스포는 실�크로드 상의 나라들과 함께 경주에서 ‘실�크로드 문화엑스포’ (가칭)를 개최하고, 2017년 세 번째 해외 엑스포는 실�크로드 국가의 역사문화도시 중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 도지사는 “이스탄불-경주엑스포를 통해 세계 문화융성과 인류공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한다”며 “터키와 한국은 이 아름다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카디르 톱바쉬 시장도 “이스탄불-경주엑스포를 계기로 고대 실�크로드가 단지

역사에만 존재하는 통로라는 인식을 넘어, 미래까지 펼쳐질 새로운 상상과 희망의 길로 기록됐다”며 “이스탄불시와 경북도, 경주시는 문화엑스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무한한 교류 확장의 기회를 얻었다. 터키와 한국이 긴 평화와 번영을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대변인(053-950-3057) | 등록일 : 2013.09.23)

## [경상남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45일간 대장정의 막 올라

- 9월 26일, 천년의 마당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열려

- 경상남도과 합천군, 해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9월 26일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갖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 이 날 개막식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하창환 합천군수,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 금동수 창원 KBS 방송총국장, 황용구 경남 MBC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정계, 종교계, 언론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축전이 될 것을 다짐하였으며, 특히 불교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참석하였다.
- 또한, 24개국 주한대사 가족 45명이 방문하여 국제행사로서 위상을 높여주고 대장경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개막식은 26일 오후 1시 20분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2시부터 공식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초청가수의 식후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 개막식 사전행사로 한국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공연과 대한태권도협회의 ‘태권도 탈’ 너버벌(비언어) 공연이 이루어져 역동적이면서 문화의 화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볼거리가 펼쳐져 큰 호응을 받았다.
- 개막식 공식행사는 경과보고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막사, 환영사, 축사 및 축하 영상메세지 등이 이어졌으며 ‘평화를 위한 지혜의 열림’이라는 타이틀로 개막 퍼포먼스와 동시에 대장경 진본이 보관된 대장경 천년관을 개장하였다.
- 공식행사에 이어 식후 축하공연에는 합천 출신의 김종국과 인기 트로트가수 김혜연의 공연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인기 아이돌인 제국의 아이들, 레인보우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계층에 대장경 축전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 한편, 대장경축전은 9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전 시작에 돌입하며, 11월 10일까지 45일 동안 대장경 천년관, 5D 입체영상관 등 대장경의 역사적, 문명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해인사와 연계한 소리길 힐링 체험장 운영, 해인사 마애불 입상 공개, 암자비경 탐방 등 국내외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055-211-6253) | 등록일 : 2013.09.26)